

바람둥이 부부

바람둥이 아빠에게 대학생 딸이 있었다.

하루는 딸이 흥분한 표정으로 뛰어와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멋진 소식이 있어요. 오늘 제 애인 재석이가 청혼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비밀인데, 아빠가 네 엄마와 결혼하기 전에 재석이 엄마를 사귀어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재석이는 네 오빠야.”

마음에 상처를 입은 딸은 한동안 남자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얼마 후, 딸은 다시 환한 얼굴로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새로 사귀어 남자 친구 호동이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아빠는 이번에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안됐지만, 호동이는 너의 오빠란다.”

몹시 화가 난 딸은 엄마에게 달려가 하소연했다.

“아빠는 내가 사귀는 남자마다 모두 이복 오빠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는 딸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얘야, 그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 사람은 너의 아빠가 아니란다.”